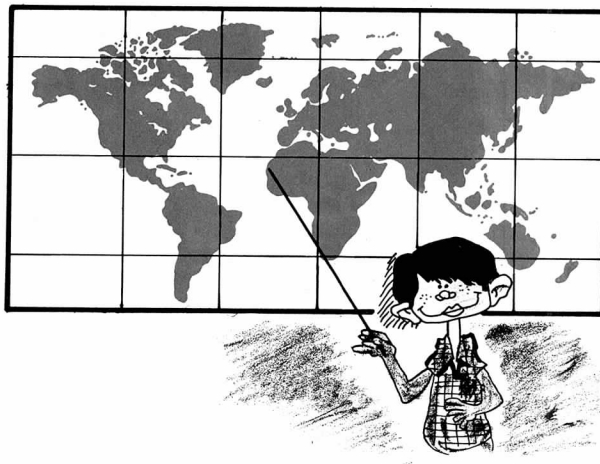




國際氣流

世界 각국의 情報通信市場 동향



미국

IBM, 컴퓨터 긴급지원사업 진출

미국 IBM은 긴급사고에 대비한 컴퓨터시스템의 지원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

이는 재해사고시에 IBM의 컴퓨터센터를 일시적으로 이용케 하는 것으로, 북미주의 이러한 시장은 연간 현재 2억달러에 지나지 않으나 매년 25% 이상씩 성장해 가고 있는 분야이다.

IBM은 H/W 판매촉진을 겨냥한 서비스 확충정책의 일환으로 동서서비스를 전개하고 있다.

AT&T, 정보서비스 진출 희망

미국 전신전화회사(AT&T)는 워싱턴 지방재판소에 장거리전화망을 이용한 정보제공 서비스법 계획을 신청하였다.

1982년에 결정된 전화회사의 사업분야 규제가 내년 8월에 기한이 만료됨으로써 개정될 예정으로 되어 있다. AT&T는 이를 계기로 규제완화 타진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미 일부 정보서비스에서는 과거 벨시스템계열 지방 전화회사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동사의 계획은, 가정 및 사무실의 퍼스컴과 자사의 통신회선을 연결하여 전자 쇼핑, बैं킹, 뉴스 제공, 항공 좌석예약 및 전화번호부 황색 페이지의 전자 서비스판 등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통신회선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향상 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현재의 회선을 광파이버로 전면 교체하면 화상 정보 등의 제공이 쉽게 된다.

일반 가정대상의 전자 쇼핑과 बैं킹 등 서비스는 보급이 지지부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비용이 높는데 이유가 있으며, AT&T의 진출이 실현되면 저렴해 지리라는 계산이다.

한편 신문업계와 출판업계가 이미 전자 정보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어 이들은 전화회사의 정보서비스 진출을 반대하고 있다.

FCC, 가격상한 규제방식 도입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는, 금년 7월부터 AT&T의 장거리 전화요금 규제제도에 현행 총괄원가주의(공정보수율 규제) 대신에, 가격상한 규제방식(Price Cap 방식)을 도입 적용한다.

가격상한 규제방식은 서비스의 가격인상률의 상한을 「GNP 물가지수 마이너스 3%」로 설정하고, 여기에 5% 이상의 인상을 인정하지 않는 방식이다. 이 범위 내에서는 요금을 사업자가 유연하게 설정할 수 있도록 된다. 영국의 BT(British Telecom)도 이러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FCC는 가격상한 규제의 도입에 따라 요금인하를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후 4년간 약 9억 달러의 요금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보며, 지역 전화회사의 요금도 내년 7월에 적용토록 제안하고 있다. 지금의 총괄원가주의는 원가에 보수액(사업자 자산에 보수율을 곱한 것)을 가산하여 이것을 3~5년간의 수요로 나누어 요금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사업자에게는 필요한 원가를 요금에 반영하는 잇점은 있으나 탄력적인 요금설정에 대응하지 못하는 단점이 지적되고 있다.

캐나다, 위성이용 이동체 통신 서비스 개시

캐나다의 TMI(Telesat Mobile Inc.)가 동사의

통신위성 MSAT를 이용한 이동체 통신서비스를 몬트리얼을 중심으로 개시하였다.

TMI는 캐나다 정부가 50%, 몬트리얼의 캐나다 안 패시픽이 30% 출자하고 있으며, 이외에 영국, 일본 등의 기업도 출자하고 있다.

TMI에서는 주로 셀룰러 전화서비스로 커버되지 않는 도시, 농어촌, 산간벽지 및 연안 320km까지의 해역을 대상으로 자동차, 항공기, 선박용 전화서비스와 데이터 통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앞으로 미국의 AMSC(American Mobile Satellite Consortium)와 제휴하여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커버하는 이동체 통신서비스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신 서비스를 위해 2개의 통신위성을 사용토록 하고 1990년 초에 제1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美컴퓨터社, 싱가포르에 S/W 개발센터 설립 추진

미국의 유력 컴퓨터 관련기업이 싱가포르에 S/W 개발 센터를 설치할 움직임이다. 이는 확대되는 동남아의 컴퓨터 시장을 겨냥하여 현지와 밀착한 개발체제를 갖추려는 것이다. 이는 지식집약형 산업육성을 목표로 하는 싱가포르 정부의 구상과 일치하고 있다.

최근 S/W 개발 센터를 개설한 미국기업은 사무기기 메이커인 제릭스, S/W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캘리네트 소프트웨어와 에슈턴테드 3개 회사이며 NCR도 금년 중에 설치를 예정하고 있다.

이 중에서 에슈턴 테드는 센터 개설에 이어서 싱가포르에 동남아의 경영 총괄본부를 설치할 것도 검토하고 있다. 각 회사는 아시아 시장을 목표로 상품을 개발하고 지역내의 많은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중국어 S/W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초기에는 기존 S/W의 번역을 중심으로 하다가 점점 기술자를 육성하여 싱가포르에서 독자 상품을 만들 계획이다.



國際氣流

싱가포르는 교통망과 통신기반이 충실하고 시스템 엔지니어의 채용이 비교적 용이한 것이 매력으로 꼽히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추정으로는 시스템 엔지니어의 수는 80년도에 8백명, 88년도에 8천명으로 급증하였고 90년도에는 1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정부가 전문학교를 개설하는 등 시스템 엔지니어 양성에 힘을 기울여 온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이외에 이미 서독의 닉스도르프와 일본의 일본전기가 싱가포르에 S/W 개발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동남아를 장래의 유망시장으로 판단하고 있다.

동 남 아

싱가포르 기업연합, 美센티그램과 제휴

싱가포르의 기업 연합이 음성메일 시스템의 유력 메이커인 미국의 센티그램에 자본 참가를 결정하였다.

국영 벤처 캐피탈 회사인 트랜스텍 벤처스가 중심이 되어 투자수익과 미국으로 부터의 기술이전으로 일석이조를 노리고 있다.

센티그램은 음성 메일 시스템 시장에 1983년에 참여한 신흥기업이나 1800시스템 이상의 납품실적을 가진 회사이다.

아세안, 텔리포트 진전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3개국이 텔리포트 건설에 일본정부의 협력을 요청하고 있다. 각 국

의 구상은 컴퓨터 센터를 핵으로 하는 부도심에 외자기업을 유치하려는 것으로 약 2000억엔의 프로젝트에 달한다. 일본 우정성은 동남아시아연합(ASEAN)의 통신사정의 개선과 일본과의 제휴 강화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다.

일 본

수발주 EDI 기업코드 표준화 실시

일본 통신산업은 수발주 거래를 중심으로 하는 전자데이터교환(EDI)에 사용하는 기업코드의 관리, 보급 활동을 실시토록 지난 4월에 결정하였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유통 시스템 개발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통 거래선 코드를 사용하고 있으나, 제조업계를 시초로 하여 업계간의 거래에 까지 확대한 업계 종횡적인 기업코드의 관리체계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이다.

산업정보화 추진센터의 전자거래표준화 추진위원회에서 검토해 오던 것으로 하나의 기업을 6개 문자로 표시하고 선행부분은 각 업계의 식별코드로 정하고 있다.

코드 등록은 업계별로 설치하는 코드센터에서 하고 각 회사에 번호를 부여하며, 전체의 관리는 산업정보화 추진센터 내에 설치하는 중앙 코드센터에서 수행토록 한다. 우선 5월부터 일본전자 기계공업회가 시험 실시하고 차츰 전산업계와 석유화학업계로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동경재판소, 케이블화재 피해보상청구 소송 기각

동경재판소는 지난 1984년 동경 세다가야구의 통신 케이블 화재사고시 발생한 피해보상을 위해

인근 상점 등 90여명이 일본전신전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에게 화재에 대한 과실이 없고 손해배상청구에 이유없다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인근상점 90여명은 화재발생으로 인한 전화불통으로 상품주문을 받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4천 7백만엔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NTTI, 3국정부와 컨설팅 계약

일본의 NTT 인터내셔널사는 필리핀, 태국, 자마이카 3국 정부와 차례로 통신망 정비에 관한 컨설팅 계약을 체결했다. NTTI가 수주한 액수는 3국 합계 약 10억엔 정도이며 모두가 전화망 정비에 소요되는 대형 국가 프로젝트이다.

유럽

CITL, 스웨덴에 TV 전파이용 데이터 제공

CITL사는 스웨덴 국내에서 TV의 수직귀선 소거시간을 이용하여, 고객에게 외국환 상장 정보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수직귀선 소거시간은 여러 나라에서 문자 방송에 이용하고 있으나, 이 서비스는 데이터 통신회선으로 이용한다.

동사는 이 서비스를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 등 세계 각국으로 확대해 갈 생각이다.

수직귀선 소거시간을 데이터 통신회선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는 1986년 영국에서 시작되었으나 통상의 TV 수신보다 고성능의 안테나가 필요한 등의 어려움이 있었으며, 이번에 스웨덴 우전성에서는 통상의 안테나로 실용화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이같은 서비스는 기존의 TV 방송망을 이용하여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통신회선을 얻을 수가 있어 전화회선 품질이 나쁜 나라에서 큰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BT, 통신과 방송 복합서비스 실시

영국의 브리티시 텔리콤(BT)은 광파이버 1회선으로 전화뿐만이 아니라 TV와 라디오 방송도 각 가정에 보내는 통신, 방송 복합서비스의 상업화 실험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영국정부는 특례로서 BT에 대해 방송사업도 할 수 있도록 인가했다. 이러한 광파이버망의 보급, 고도화로 인하여 통신사업은 방송사업 진출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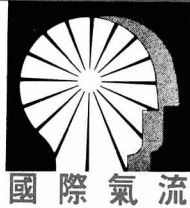
C&W와 US Sprint, 국제통신 케이블사업 제휴

영국의 통신회사인 Cable & Wireless(C&W)와 미국의 장거리 전화회사인 US Sprint사가 최초의 순수 민간 대서양 통신케이블(PTAT) 사업에 제휴하고 각각 50%씩 출자하도록 합의했다. PATA 사업은 7월에 착수될 예정이다.

영국 통산성, 단계적 통신자유화 제언

영국의 전기통신 기반구조에 대한 장래상을 그린 정책 제언보고서 「내일의 기반구조」가 발표되었다.

내용은 ① 규제하의 완만한 경쟁 정책 ② 자유방임주의 ③ 광파이버에 의한 단일 광대역 통신망의 구축정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호 경쟁관리의 전기통신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상호접속에 의해 현행의 「규제하에서의 완만한 경쟁 정책」을 추진하도록 제언하고 있다.



美 PACTEL, 西獨 자동차 시장 참여

미국의 지역 전화회사인 Pacific Telesis는 서독의 철강회사인 만네스만, 영국의 C&W와 합병으로 서독 자동차 전화시장에 참여한다.

서독 우전성의 인가를 얻어 연내에 사업을 개시하게 되는데 새로운 기업 연합은 만네스만의 자회사가 50% 이상을 출자하고 PACTEL과 C&W가 소수 주주형태로 참여케 된다.

유럽 위성회사, 미국 방송위성 매수 추진

유럽 위성회사(SES)는 이미 발사된 기존의 방송통신위성 매수계획을 추진할 움직임이다.

1992년 EC시장 통합으로 유럽 전역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위성에 의한 TV방송 등의 수요증가를 대비하여 미국의 제너럴 일렉트릭(GE)과 타임사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GE·ASTRO 위성을 매수하고, 제2의 위성을 추가로 매수하여 채널수를 늘려 나갈 계획이다.

서독, 우전성 분할로 자유화 촉진

서독 연방의회는 지난 4월 20일 서독우전성(분

데스포스트)의 개혁법안을 가결시켰다. 이 법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혁내용의 기본적인 골격은 첫째 분데스포스트를 행정기관과 사업운영체로 분리하고, 사업 운영부문을 3개의 공사로 분할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우편, 포스트뱅크(우편저금) 및 텔리컴(전기통신)의 3개 공사가 설립된다.

행정기관으로는 기반구조위원회가 설립되어 지금까지 우전관리위원회가 맡아오던 역할을 인계받게 된다. 동 위원회는 연방 의회의원 및 주정부 대표자로 구성된다.

지금까지 실시되 오던 전기통신사업에서 우편사업에 대한 재정원조는 내년 중에 우편사업이 흑자가 될 때 폐지된다.

또한 전기통신분야의 경쟁원리가 도입된다. 구체적으로는, (1) 기본통신 네트워크는 텔리컴이 독점으로 하나 위성통신 및 이동체 통신분야에는 민간기업의 참여를 인정하고 (2) 전화서비스는 텔리컴이 독점으로 하고 기타 서비스에는 경쟁을 도입하며 (3) 단말기기시장은 경쟁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텔리컴은 기본통신 네트워크와 전화서비스의 독점적 제공 이외에 경쟁서비스의 제공도 인정된다.

이로써 자립성이 확립되고 유연한 임금결정이 가능하게 되는데다 우수 인재채용이 가능해져 다이나믹한 경영체질 전환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 네트워크 표준을 변경 검토

미국의 텔레포니사가 발행하는 인터내셔널 텔레포니 3월 27일호가 게재한 바에 의하면 한국은 전송 네트워크 표준을 현재의 미국 표준인 T-1을 유럽 표준인 CEPT로 변경 계획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경은 세계에서 처음있는 일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은 분명히 ISDN에서 북미방식보다 CEPT 표준의 융통성을 선호하고 있으며 이 변경이 외국의 CEPT 하드웨어 시장 공략에 지역 제조회사를 적응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한국의 기반구조는 다음 세대에 매년 평균 백만 신규가입자가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성장은 표준을 변경하기 위한 경제적인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 프로젝트는 아마도 초기에 CEPT를 안전지대로 구축함으로써 네트워크 분열을 최소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규 표준간에 변환장치를 제공하는 일은 대단히 커다란 일이다. 이러한 부문에 세계적인 공급분포만을 갖고 있는 전문회사인 Ireland Tellabs사가 이미 한국에 시험적으로 T-1/CEPT 변환장치를 공급하고 있다.』